

방통위, 동절기 지역방송 시설 현장점검

- KBS대구총국 앞산중계소 방송시설 안전조치 및 재난방송 대응상황 점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월 22일(금) 한국방송공사(KBS) 대구방송총국의 앞산중계소를 방문하여 한파와 대설 등에 대비한 방송시설·출입로 안전조치와 재난방송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인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방통위도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도로·철도 터널 등의 재난방송 중계 설비 설치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파와 대설 등 어려운 기상여건 하에서도 방송시설의 안전과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끝.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책임자	팀 장	이훈식 (02-2110-1442)
	재난방송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이병우 (02-2110-1448)